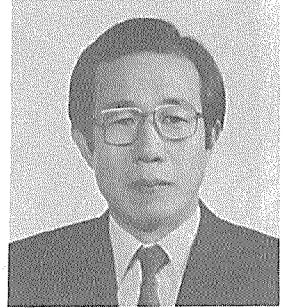


더 이상 시행착오를 말자

홍승채 / 본회 비상근 이사
한국컴퓨터(주) 사장



모처럼 2주간이란 긴 미국출장을 다녀오니 원고청탁이 와있었다.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에서 경제불황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막 돌아왔다.

매출액대비 18%의 순이익을 내는데도 2년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어느 항공사관련 회사 직원의 이야기도 들었고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때나 재미좀볼까 하고 물건을 쌓아두고 조용히 기다리는 상인들, 전자제품매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는 좀처럼 찾기 어렵고 일제나 중국제가 눈에 많이 띄는 것도 보았다.

섬유제품에서는 중국제가 판을 치는것도 보았다.

귀국길 비행기에서는 클린턴이 들어서면 시장개방압력이 일층 강해질 것이란 이야기가 여러신문에서 실려 있었다. 김포에 내려보니 우리나라는 상업은행지점장 독직 사건과 선거열풍에 온 국민이 떠들썩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제적 후진국, 경제적 식민지로 낙락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일이 아닌데도 우리 주위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금년 3/4분기까지 평균 기업조달금리는 16% 내외가 아니었던

가!

이 금리로 개발투자를 하고 수출도 하라는 정부, 사치에 증독이 되어 그것이 분수에 넘는 사치인 줄도 모르고 사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 정권만 잡고 정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장래, 국가의 경제에는 전혀 관심없이 떠들어대는 정치가란 사람들, 주위의 여건이나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회사의 형편은 생각도 않고 머리띠를 두르고 뺑가리를 치는 일부 “노”라는 사람들, 무역수지는 해마다 적자행진이라는 형편에..., 나라꼴이 왜 이런지 답답하다.

남들(선진국)이 겪은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것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제서야 정신차리는게 아니고 시행착오의 기간과 과정을 단축할 수 없을까!

NAFTA나 EC통합이니, 중국의 수출 급성자이니 하고, 우리를 죄어오고 있지 않은가!

시행착오의 해를 금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정말 이 이상 끌다가는 남미국가나 필리핀 짝이 날것이니...,

새로운 각오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전 국민이 다시 분발한다면 1990년대 중반에

는 또다시 아세아의 별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한가지 우리모두가 그동안 정부의 과장된 P.R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치 선진국 문턱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듯한 착각을 갖고 있을것 같아 참고로 국가별 일인당 GNP를 알아보았다.

1991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0년 세계에서 40번째 국가이다(1위 스위스, 3위 일본, 6위 미국, 30위 대만) 또한 1991년도에 한국은 \$6,498인데 미국 \$22,400, 일본 \$27,326, 불란서 \$21,040, 대만 \$8,815, 싱가포르 \$13,712, 홍콩 \$14,043이다.